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本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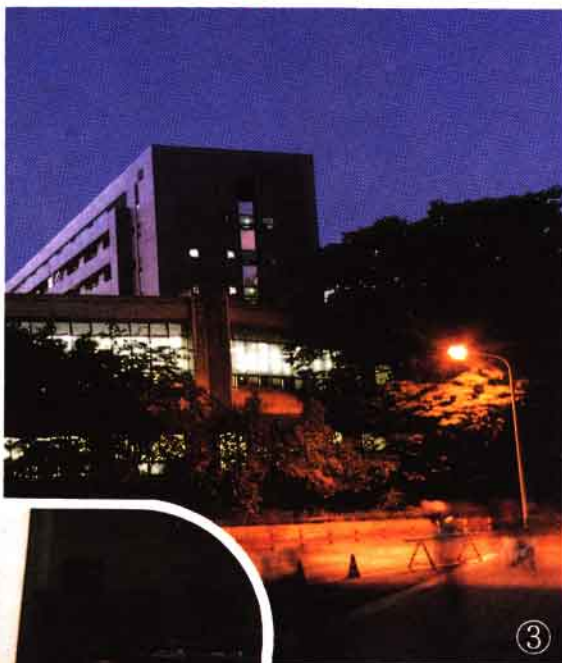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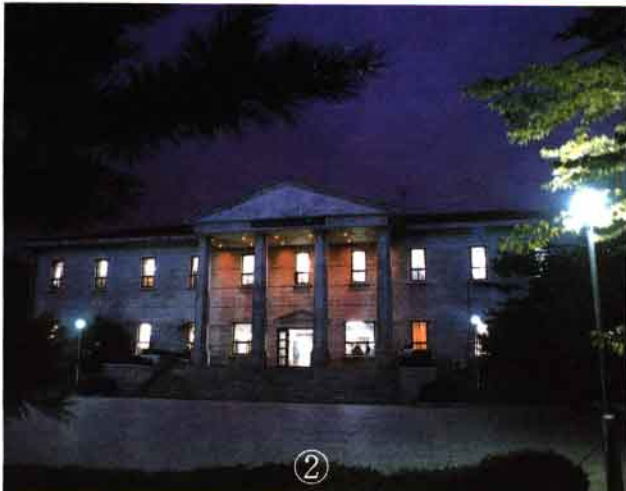
發行兼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 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不夜城 이론 眞理의 殿堂



學問探究에 究를 담
아갈 곳 없이 모교 中央도서관에서 眞理의 殿堂에
남이 없는 後學을. 사진 위는 대낮처럼 밝혀
진 ①農大 ②法大 ③醫學分館

冠岳春秋

母校의 冠岳 캠퍼스 본館 뒤에는
그보다 덩치가 훨씬 巨大한 圖書館
이 자리하고, 본館 중앙 아래쪽으로
그 下部가 透視된다. 이것은 캠퍼스
어디서나 대개 5분 내지 10분 거리
에 圖書館이 놓여 이용이 편리하도
록 한 것과는 어울려, 圖書館이 곧 大學
의 心臟部라는 것을 象徵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1991년도 母校 업무 현황에
따르면 圖書館은 본館과 醫學·農學
·法學의 세 分館으로 되어 있
다. 座席 규모는 본館이 4천 4
백 24석에 醫·農·法 分館이
각각 3백 97, 5백 74, 2백 68석
으로都合 5천 6백 63석이며,
藏書數는 본館이 1백 22만 8
천책에 醫·農·法 分館이 각
각 9만 7천, 9만 5천, 4만 2
천책으로 총 1백 51만 2천책이
다.

이 藏書數를 세계 有數大學
도서관에 견주어 보면, 하바드
대가 1천 1백 40만책, 東京대가
6백만책인데 비해 각각 13
· 6%와 25·2%에 해당한
다. 도서관 購入費는 하바드대가
1천만 달러, 東京대가 1천 4
백 50만달러, 서울대가 1백 60만
달러로 서울대가 각각 그들의
16%와 11%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로 보면 너무 미약함을 느
끼나, 국내 타 大學의 藏書가 50만책
이 넘는 데가 단 두 大學인데 비하면
서울대는 그 세 배가 된다는 것으로
自慰가 된다 고나 할까.

世界 有數大學과의 對比는 國力
의 伸張과 教育에 대한 意識의 強化
를 기대해야 할 未來의 일로 여겨진
다.

圖書館은 大學의 心臟部

다. 奎章閣은 朝鮮朝 正祖가 卽位한
해(1776)에 3만여 책의 藏書로
창설한 王室 圖書館으로서, 그 뒤 藏
書가 불어나 현재는 古書만 22만 6천
3백여 책으로 되어 있다.

王室 圖書館은 조선의 奎章閣의 본
래의 藏書는 韓國本과 中國
本에 藏書, 古文書 등 다른 데는
없는 유일 資料가 많은 것으로 으
름이다. 일마 전에, 日帝의 강압으로 체
결된 乙巳 五條約에 高宗의 서명과
수결이 없어 外交文書로서 무효하
다. 日刊紙의 보도의 근거도 바로 奎
章閣에 보관된 條約 原文을 검토하
다 발견된 사실이다. 아직 미처 整理
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古文書 속
에는 세상의 주목을 끌고 어마한 자료
가 들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러
한 珍貴 資料의 寶庫로서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奎章閣의 독립
은 잘 된措置라 여겨진다. 그리
고 이것은 또한 서울大學이 지
닌 世界的 자랑거리라 하겠다.

圖書館은 분명 大學의 心臟
部다. 그러므로 그 훌륭한 施設
과 풍부한 藏書에 합리적인 運
營, 효과적인 活用이 뒤따를 때
그 구실이 빛나게 된다. 이 중
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活用
하느냐다. 그 점 우리 도서관은
늘 不夜城을 이루고 있다. 아무
리 데모가 심할 때라도 이 傳統
은 끊인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 出身의 國運 개척해 나
가는 믿음직한 산근거가 되는
것이다.

圖書館에는 敎養·專攻·情
報을 위한 수많은 이용객의 다
양한 趣向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資料, 活用に 便을 도모하
는 각종 目錄, 資料 카드의 具備과 친
절한 봉사자 필요하다. 利用者는 그
資料가 永遠히 普遍的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혹은 珍貴한 部分을 오려
내는 破産한 일이 없이, 귀중하
다를 것이다.

圖書館에서 사는 學生들은 더할
나위가 없으나, 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圖書館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문턱에도 가지 못한 채 大
學을 졸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로 한류화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온 인물이기도 하다.

모교와 교육주립대학교는 이미 지난 99년 마버거 총장이 모교를 방문하여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위하여 양각사를 교환했고 이어 91년에는 趙完世전 모교총장의 초청에 따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모교와 교육주립대간의 이번 마버거 총장의 방문을 통해 모교교수들 각 학문분야를 대표하고 저명한 학자의 저서 10권을 5천 원에 출판키로 합의했다.

14代國會議長團 모두同門

의장 朴浚圭 동문

부의장 黃路周·許京萬



◇ 朴의장



◇ 黃부의장



◇ 許부의장

지난 6월28일 開會된 157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에 朴浚圭(48년 文理大卒·民自)가, 부의장에 黃路周(65년 商大卒·民自)와 許京萬(65년 司法大學院卒·民主)이 각각 선출됐다. 앞으로 14대國會전반기를 이끌어갈 朴의장은母校 정치학교수를 지내다 지난 60년 民主黨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8선을 기록한 원로이다. 그간 共和黨의장 民主黨

3部處 장관, 서울市長 서울大人

統一부총리 崔永喆 韓永錫
법제처 李在昌 李相培
서울시장 李在昌 李相培



◇ 崔부총리



◇ 韓법제처



◇ 李서울시장



◇ 韓법제처

新政黨 대동령 후보 朴燦鍾 동문



◇ 朴후보

朴燦鍾(65년 南大卒·新政黨) 대표최고위원(이) 지난 6월9일 열린 新政黨 임시전당대회에서

副會長·監事 선임

執行部 구성 마쳐

環境大學院 동창회 柳元圭(65년 5월28일 열린 定期總會에서 새로 선임된 柳元圭 회장에 게 부회장과 金士等 임원의

제14대 대통령선거의黨 후보로 선출됐다. 朴燦鍾은 이날 후보추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 파당의 지역주의 폭력과 등의 횡포를 극렬해 국민정치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4선의원인 朴燦鍾은 사법및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도하종합기술공사 전문)·최관영(임진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감사 李(화일주) 박은행 주택금융경제연구소장·노만영(한영엔지니어링 사장) ▲간사 李(영인도) 진철부 도사국 도시계획과 계장·조강현수(모교 조교·조용현(모교 조교))

法大 학장 離·就任宴 열려

동창회 任員·教授 상견례 겸해

法大 同窓會 회장 琴慶鎬(65년 6월15일 12시 모교 호암교수회관에 서 법대학장이 취임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날 취임식은 신임徐元圭 학장에 게 축하와 함께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이인한 朴秉濤 학장에 게는 재임중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후보추천 8월 31일까지

모교에서는 제2회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을 선정기 위해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의 후보는 모교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장기간 봉직한 교수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모교를 빛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環境處 차관에 金仁浩 동문



◇ 金차관

한편 이와 별도로 6월29일 단행된 次官급 인사에서는 환경처차관에 金仁浩(66년 法大卒·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동문이 기용됐다.

朝鮮大 총장에 丁炳然 동문



◇ 丁총장

丁炳然(49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이 지난 6월18일 조선대 제9대 총장에 선출됐다. 신임 丁총장은 全南靈

診斷

모교綜合化계획

서울대학교가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캠퍼스綜合化의 제1, 2단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제3단계 종합화를 추진중에 있다. 캠퍼스의 종합화는 교육 및 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학문의 연계성 강화 및 學制의 공동연구의 추진,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수강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모교는 1, 2단계 캠퍼스綜合化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單科大學이 「冠岳」 캠퍼스에 모였으나 農業生命科學大學과 獸醫科學大學은 당시 이전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문발전과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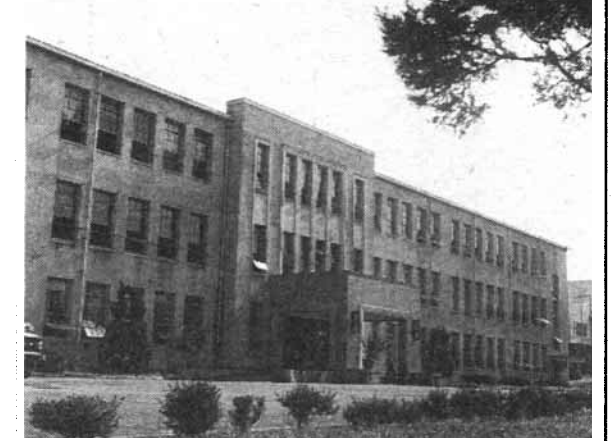
(1) 인접한 수원전투비행장으로 부터의 소음 (100dB 이상)과 진동으로 인한 학습장애

水原캠퍼스 移轉 시급하다

기자재(전자현미경, 파지오그래프, 질량분석기, 핵자기공명분석기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강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비행기 추락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2)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대만 고립되어 기초학문, 첨단과학분야 등 관련분야와의 교육,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3) 冠岳캠퍼스의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도서관, 기숙사, 전산원, 문화관, 기숙사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원활한 교육 및 연구가 불가능한 점이 어렵고, (4)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의 시작(20여년 전) 되면서 農學캠퍼스는 그 이전을 전제로 하여, 현 수원캠퍼스에는

신축건물 및 시설의 개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됨으로써 교육건물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農學캠퍼스의 이전 종합화는 그간 몇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1982년 12월 31일 공포) 제정전인 197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므로 農學캠퍼스의 이전 종합화는



◇ 겉으로 번듯해 보이지만 内部는 낡을 대로 낡은 農生大 本部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업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母校 農學생명과학대학은 한국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농업생명과학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생명과학의 학문적 발전 및 차세대 생명공학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해외 농업의 개발 및 기술협력 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 농업의 흐름은

세제 농과대학은 농사 일꾼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농업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첨단 농업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는 인접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내제 서울대학교 農業生命科學大學은 80여년 동안 농업분야의 인재양성, 연구와 신기술 보급, 미래 농학의 방향 제시, 국제협력 등에 있어서 언제나 앞장서서 우리나라 농학을 이끌어 왔으며, 다가오는 21세기 한국의 농업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맡겨진 책임은 막중하다.

이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고, (2) 農生大 및 獸醫大의 학생정원은 경기도 지역의 학생정원보다도 높고,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로 진단위로 모집되고 있기 때문에 타 대학교의 분지 농·수의대 학생의

교과목은 冠岳캠퍼스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 冠岳캠퍼스 이전이 성사된다면 冠岳에 있는 다른 전종 학생들도 식량과 농업기술과 휴식과 여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균형있는 교육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農業科學도 이에 맞추어 첨단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업과학기술의 대부분 80% 이상은 농업분야에서 실용화되는 농업생명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생명과학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농업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은 국가경제의 대동맥과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과 정부당국의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하겠다.

첫째 농업의 중심이 되는 생산업은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미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농업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

적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나라 미래농업의 成敗는 오로지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성과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농학교육과 연구의 혁신만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의 산업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다. 둘째 농과대학은 농사 일꾼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농업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첨단 농업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는 인접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와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母校 農學생명과학대학의 열악한 교육 및 연구환경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2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모교가 민족의 대화, 더 나아가 세계적인 대화이로써 농민에게 위하는 관철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를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학대학을 冠岳캠퍼스에 인접한 곳으로 옮기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농과대학과 수의과학대학은 모두 冠岳캠퍼스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沈鍾燮

「41년 農大卒 農大동창회장」



同門의 견해

▲첫째: 밖에서 본 피상적 그리고 안이한 판단과 內實을 기하여 할 교육과 연구에 대한 沒理解 ▲둘째: 이에 수반되는 政府의 財政的 어려움 ▲셋째: 정치경제 사회의 불안과 학원의 소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대를 전후

▲넷째: 국가재정의 절약을 위하여 특고교를 하여 할 점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農大全體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나 대안에는 이工大를 관여하여 있던 한 것을 생각하면 農大 일부의 舍流는 문제될 바가 없다. 이제 이 문제는 政府 次元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均衡있는 교육과 연구의 發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유독 農大만이 뒤처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라 생각된다.

강의·연구실만 舍流하자는 것

政府 차원 결단내릴 시점

農대의 一部가 舍流으로 舍流하여야 한다는 意見은 冠岳캠퍼스에 이전이 시작될 때부터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다급수원에 그대로 두자는 데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실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경부터 다시 舍流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중, 近來

에 와서 그 계획이具體化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이 계획이 지 지부진하였던 理由는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冠岳의 실과 연구실을 冠岳으로 舍流시켜 綜合大學 本然의 合理的 運營에 대한 對대의 惠化를 위하여

하기 위하여 ▲셋째: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대한 不便의 最少化를 위하여

▲黃東圭 서울대인문대교수	▲高光駿 국민부자재단이사장	▲金玉照 국무총리비서실장
▲黃政顯 청와대總聯手회장	▲高光夏 변호사	▲金完植 변호사
▲姜恩葉 계원예고미술소장	▲高宗鎭 동아민주사장	▲金容鈞 前체육부장관
▲姜泰成 이화여대교수	▲高重錫 전주지방법원장	▲金容仁 변리사
▲郭元模 중앙대교수	▲郭秉珍 중소기업조합이사	▲金容俊 대법관
▲權純亨 서울대교수	▲郭正出 국회의원	▲金容喆 변호사
▲金明浩 덕성여대교수	▲權光重 사범연수원교수	▲金潤洙 동창회민주부장
▲金善永 서문인쇄지기사장	▲權秉順 서울경찰청를대표	▲金龍煥 국회의원
▲金守錫 부산대교수	▲權憲禧 국민민사회장	▲金潤慶 변호사
▲金載姪 화가	▲權五濶 (會) 제양시장	▲金潤熙 동화약품부장
▲金 泰 서울대교수	▲權宗根 변호사	▲金乙永 주지하시장
▲文學普 예술원정회원	▲琴秉勳 변호사	▲金義在 변호사
▲閔庚甲 유산화설심장	▲金 裕 한미은행사무이사	▲金仁柱 한국철도부장
▲閔哲泓 서울대교수	▲金甲現 정부2차관	▲金仁浩 환경처차관
▲朴魯壽 예술원정회원	▲金剛榮 변호사	▲金仁煥 효성중공업사장
▲朴大淳 한양대교수	▲金建興 해남지원장	▲金在久 안동지원장
▲朴世元 덕성여대교수	▲金慶澤 대우조선공업사장	▲金在澈 사범연수원장
▲朴哲俊 서울교육대학교수	▲金慶喆 변호사	▲金正俊 불타니상시장
▲白泰昊 장영반심장	▲金公植 변호사	▲金宗鐸 국회의원
▲邊大成 (前) 부통령심사관	▲金貴洙 前삼삼투자사장	▲金鍾大 중무지원장
▲徐世鉉 서울대교수	▲金光元 경신속도부지사	▲金鍾泰 새한산업광고사장
▲孫喜玉 단국대강사	▲金光一 국민당최고위원	▲金周仁 씨즈통상시장
▲宋榮邦 동국대교수	▲金教昌 변호사	▲金柱祥 추진지방법원장
▲安商詰 성신여대교수	▲金基洙 한양대법정대교수	▲金澤浩 코리아나호텔사장
▲李承義 수원랜드로마대표	▲金洪春 법무부장관	▲金鎮佑 헌법재판소재판관
▲李信子 덕성여대교수	▲金寶燮 변호사	▲金昌甲釜谷물품관리이사장
▲李烈模 성균관대교수	▲金吉永 성장기업전부이사	▲金昌浩 현대증권강사
▲李容煥 건국대가정대교수	▲金能煥 충무지원장	▲金哲洙 서울대법대교수
▲李尤姬 서울대교수	▲金達彬 변호사	▲金春鳳 변호사
▲李福福 (會) 포름디자인사장	▲金大雄 대전충무부2과장	▲金致善 노사발전연구원장
▲李鍾哲 퍼시픽호텔사장	▲金德柱 대법원장	▲金泰卿 변호사
▲張濶宇 성신여대교수	▲金東圭 前구회의원	▲金泰武 통일공사 인사국장
▲田甲培 서울시립대교수	▲金東遠 前대우투금강사	▲金泰鎬 前구회의원
▲趙誠愛 화가	▲金斗喜 대전철도청사장	▲金平祐 변호사
▲趙英濟 서울대교수	▲金汝常 변호사	▲金許男 솔노상고이사장
▲陳眞淑 한양대교수	▲金汝熙 헌법재판소재판관	▲金憲武 대구지방법원장
▲車明喜 광동대학교수	▲金錫營 태안종합상사사장	▲金賢泰 청량리역사(會)사장
▲崔滿韓 서울대미술대학학장	▲金性洙 오양수산회장	▲金炯琪 변호사
▲崔正龍 신화예고미술부장	▲金聖坤 변호사	▲金炯培 홍승기건설현업인이사장
▲韓道龍 흥인내교수	▲金聖基 前법무부장관	▲金炯善 서울물부지원장
▲黃賢秀 (前美協상임) 이사	▲金聖洙 변호사	▲金洪洙 대한변호사협회장
	▲金宣圭 동창회연수지부장	▲金洪憲 변호사
	▲金聖一 법원행정처차장	▲金孝榮 국민당사무총장
	▲金承鎭 서울가정법원장	▲金興漢 변호사
	▲金昇滄 삼상투자금융시장	▲羅東鎬 전직상사사장
	▲金時昇 울산지원장	▲羅碩昊 변호사
	▲金時衡 동원자연부차관	▲南戴熙 민주당법무의원
	▲金實東 삼미유류시장	▲盧信永 前규무총리
	▲金洋一 변호사	▲文相翼 변호사
	▲金榮秀 국회의원	▲文仁龜 한국법화원장
	▲金榮駟 국회의원	▲文洪球 나라계전회장
	▲金榮珍 국회의원	▲文鴻柱美術법연구수장
	▲金永均 변호사	▲閔文基 변호사
	▲金永二 변호사	▲閔丙國 변호사
	▲金永振 수원지방법원장	▲朴東烈 새한중공업총무부장
	▲金永曄 동원건선회장	▲朴萬鎬 대법관
	▲金成勲 동창회제주지부장	▲文喜相 국회의원

[illegible]

양선주 양 7월 26일 2시.



(46년工大
卒・특허법
률사무소장
・本會理
事)



(55년 齒大
卒・전주시
치과의사회
장・本會理

기신용은행장·5월26일 한국투고문(회장대우)은

本會理事) Ⅱ
자증권 상임
로 선임됨。
理大卒・고
일화연구회

▲尹炳泰(60년 師大교수) 6월 27일 국출판학회상 저술상을 수상.

대卒·충남
제15회한
울연구분야

▲金正舜(63년 文
6월 24일 외무부 인

장예연임
(理大卒) 〓
외교안보연

▲李秀哲 68년 音大 卒・세바스

年會費내조신문

4월2일 ~ 6월5일까지

人名 및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 工科大学

▲崔洗浩 41 동서산업

▲朴性圭 63 하나건축

◇ 文理科大學

▲孫東燮 54 천선물산

◇ 師範大學

▲權清子 37 오윤학원

▲李榮德 52 명지대총

◇ 商科大学

▲金德基 56 펜타항공

▲李萬秀 62 대한교육

▲韓基徹 56 코스모스

◇ 藥學大學

▲金光淳 63 청계약품

◇ 齒科大學

▲羅潤英 66 라우영치

◇ 司法大學院

▲許京萬 65 국회의원

◇ 行政大學院

▲鄭浩澤 61 특허법률사무소대표

◇ 人文大學

▲권태인 78

▲김현수 88

▲안현환 88

▲유택영 88

▲정현수 88

▲이현수 88

▲김현수 88

▲정현수 88

▲이현수 88

▲김현수 88

▲정현수 88

▲이현수 88

▲김현수 88

▲정현수 88

▲이현수 88

▲김현수 88

▲정현수 88

◇ 社會大學

▲권이영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김기범 65

◇ 工科大学

▲신지수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김기범 45

◇ 農科大學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 文理科大學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 美術大學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 法科大學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김기범 40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
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illegible]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人間會議」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기와 참여정신 촉구를 위한 理想的회의였다면, 지난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14개국의 정상급을 포함한 178개국 정부대표 및 약3만명의 민간환경단체대표, 언론인들이 모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침과 실천방안을 제시한 今世紀 최대의 環境회의였다.



특별寄稿

행사이면서도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인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 서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50여개국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는등 지구촌은 환경의 열기가 가득하였으며, 항상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던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이 행한 『東西冷戰은 끝나고 생태계 파괴의 위험만 남아 있다』는 정상회의의 기조연설 내

權 赫
前 환경처장관
47년 醫大卒

연구소로 승격되면서 그 급여에 따라 방사선장해의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는 분야이다.

실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다. 판악캠퍼스정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2층으로 된 연구동을 중심으로 3개의 부속건물들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 同 연구소를 만나게 된다.

1982년 6월 「환경연구」로 개칭, 오늘날의 면모를 갖

리우宣言과 우리의 姿勢

이번 회의는 2년여동안 4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환경논의를 집대성하여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宣言」과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강령 「Agenda 21」, 산림원칙,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을 채택하여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개部處 16명의 정부대표와 13명의 자문관이 회의에 참가하여 신흥공업국인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 즉 기술이전 문제에서 先·開途國간의 중도타협안을 제안하여 선진국의 對개도국 기술 이전이 촉진될 수 있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환경을 이유로한 선진국의 恣意的인 무역규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副議長國의 하나로 지위를 향상하는데도 기여했다.

많은 국제회의에 참여하였으나 금번회의와 같이 대규모

새로운 環境규제: 新市場개척의 好機로 삼아야

용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인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실감나게 한 사건이었다.

이번 회의기간중 본인은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동참의지를 천명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과 분담의 공평한 배분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6개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鄭元植국무총리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선포등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을 설명하고 DMZ내 남·북공영의 생태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앞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구체적인 환경규제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국제환경 흐름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汎政府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등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환경규제를 신시장 개척의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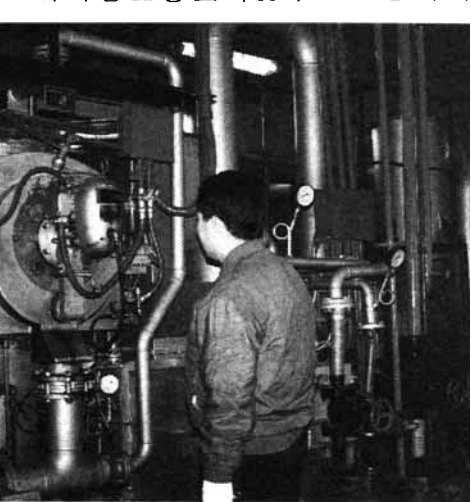
研究所에 希望을 걸고

환경안전연구소(소장 홍性)는 모교直轄法定研究所로서 캠퍼스내의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同 연구소는 대학내의 유해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시

生態界 지키는 堡壘 環境安全 연구소

서 사용하고 방출되는 시약을 말하는데, 무기폐기물, 유기폐기물, 방사성 폐기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해폐기물 처리장면

처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환경보존집포지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연보와 각종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同 연구소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경안전 연구분야인 데산·화·연공공체제로 지역사회공헌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大學중 가장먼저 設立 有害 廢기물처리·오염구미자자 기능도

또 월2회 캠퍼스환경 분석을 비롯, 수서지구 지하수 수질분석, 구의동 매립지 GAS 분석등의 의무된 연구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同 연구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동문들의 의뢰가 많다고.

연구기능의 보장을 위해 同 연구소가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은 연구진과 연구비의 확보다. 설립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전임교수가 없고 또 연구비지원에 있어서도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에 그칠뿐 정작 연구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치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산업발전의 뒷전에 밀려 방치되어 왔으며, 모교 환경연구소 역시 타분야에 비해 소외되어 온 느낌이다. 환경연구분야에 대한 지원과 진지한 관심이 절실하다. <洪>

	해로운 식품	유익한 식품
태양인 (太陽人)	참쌀, 차조, 수수, 흰밀가루, 흰콩, 율무, 땅콩, 흰설탕, 참깨, 참기름, 부, 당근, 도라지, 더덕, 마, 열무, 미나리, 셀러리, 유색상추, 모든 녹류, 우유, 요구르트, 베이킹, 계란, 기름진 음식, 흰소금, 사과, 밤, 대추, 호두, 은행, 참외, 멜론, 수박, 참, 로얄제리, 화분, 인삼, 녹용, 영지, 홍차, 커피, 비타민 ABDE, 술, 모든 약	쌀, 현미, 콩밀가루, 보리, 팥, 검은콩, 새이 있는 콩, 호박, 검은깨, 늑대, 모밀, 메조, 포도당, 황설탕, 천일염, 초코렛, 배추, 양배추, 케일, 푸른상추, 푸른아재, 연근, 우유, 파, 양파, 고추, 생강, 마늘, 호박, 가지, 오이, 도마토,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 특히 새우, 조개, 게, 굴, 오징어, 청어, 고등어, 배, 감, 딸감, 포도, 참, 오렌지, 모과, 복숭아, 잣, 살구,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구연산, 비타민C, 오가피, 녹차, 소주, 크라운맥주
태음인 (太陰人)	모밀, 흰밀가루, 검은콩, 녹두, 검은깨, 들깨, 흰설탕, 초코렛, 흰소금, 배추, 양배추, 케일, 유색상추, 미나리, 셀러리, 숙주나물, 조개류, 게, 새우, 굴, 오징어, 나지, 갈치, 고등어, 청어, 감, 꽃감, 포도, 대추, 참외, 멜론, 모과, 영지,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 오가피, 비타민E, 술	쌀, 현미, 콩밀가루, 참쌀, 차조, 수수, 보리, 흰콩, 땅콩, 유색콩, 율무, 감자, 고구마, 황설탕, 천일염, 부, 당근, 도라지, 더덕, 연근, 마, 우유, 시금치, 푸른상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두부, 콩나물, 가지, 호박, 미역, 김, 다시마, 쇠고기, 개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여러 가지 생선, 사과, 참, 수박, 밤, 호두, 잣, 은행, 인삼, 녹용, 갈근, 구연산, 비타민 ABCD, 소주, 크라운맥주
소양인 (小陽人)	참쌀, 차조, 수수, 흰밀가루, 흰콩, 율무, 감자, 고구마, 참깨, 참기름, 흰설탕, 흰소금, 파, 양파, 당근, 도라지, 더덕, 마, 생강, 카레, 후추, 겨자, 유색상추, 미역, 김, 다시마,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양고기, 조기, 사과, 참, 오렌지, 레몬, 밤, 대추, 호두, 인삼, 녹용, 참, 화분, 비타민B, 술	쌀, 현미, 보리, 팥, 콩밀가루, 새이 있는 콩, 모밀, 검은깨, 들깨, 땅콩, 황설탕, 천일염, 배추, 양배추, 케일, 푸른상추, 푸른아재, 시금치, 열무, 미나리, 셀러리, 오이, 마늘, 부, 연근, 우유, 토란, 가지, 호박, 돼지고기, 쇠고기, 계란, 대부분의 어패류, 배, 감, 꽃감, 포도, 참외, 수박, 딸기,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연근,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 히타미네, 비타민C, 구연산, 소주, 크라운맥주
소음인 (小陰人)	보리, 팥, 흰밀가루, 모밀, 수수, 검은콩, 녹두, 율무, 땅콩, 검은깨, 들깨, 흰설탕, 흰소금, 배추, 양배추, 케일, 유색상추, 미나리, 셀러리, 도라지, 더덕, 당근, 오이, 참외, 수박, 멜론, 돼지고기, 조개, 새우, 게, 굴, 오징어, 낙지, 갈치, 고등어, 청어, 감, 꽃감, 포도, 밤, 잣, 은행, 배, 바나나, 영지, 결명자, 구기자, 오미자, 비타민E, 한울식, 연육, 맥주 (OB)	쌀, 현미, 참쌀, 차조, 콩밀가루, 흰콩, 유수수, 감자, 고구마, 황설탕, 천일염, 푸른상추, 시금치, 파, 양파, 생강, 마늘, 고추, 후추, 카레, 참기름, 부, 연근, 우유, 미역, 김, 다시마, 파래, 가지, 호박, 닭고기, 개고기,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보령생선, 사과, 참, 오렌지, 토마토, 복숭아, 대추, 인삼, 녹용, 참, 구연산, 비타민C, 소주, 크라운맥주

公演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7월3일 예술의전당

89년 朴治龍(86년 音大卒 : 상임지휘자)등문등 서울音大人을 중심으로 창단된 이들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공연의 반주는 李秀慶(89년卒) 梁起熙(88년卒) 동문이 맡았다. 단무장은 金容萬(73년卒 · 전국대학합창협회고교문)등문.

◇ 서울모테트합창단



KISHIKO 국제교류음악회

—7월12일 동경Suntory Hall



◇ 金在美 피아노

韓 · 中 · 日 세나라의 젊은연주자들이 모여 각국의 현대창작곡을 연주하는 무대로 우리나라에

서는 金在美(88년 音大卒 · 건국대, 경원대강사)등문이 참가, 백병동 「송해섭에 대한 7개의 변주곡」, 박운호 「아리랑변주곡」을 연주하게 된다.

통아일랜드YOUTH오케스트라

—7월27일 예술의전당

한국계 단원 12명을 포함, 美國의 하버드 예일 등 명문출신 90여명으로 구성된 LIYO는 세계 150여 도시를 무대로 활동중이다. 마틴 드라이비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한국무대에서는 모

교音大 2학년에 재학중인 朴貞姬양의 피아노협연으로 오펜바흐 브람스 거쉰 프로코피에프 등이 오른다.

아메리칸심포니오케스트라

—7월14,15일 예술의전당

창단 3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무대. 레논 보츠타인의 지휘로 金東震(75년 音大卒 · 全州大교수)등문이 피아노협연을 하며, 번스타인 베토벤 드보르작 모차르트 멘델스존 브람스가 연주된다.

한국의 산업화문제를 국가론적 차원에서 연구 고찰한 사회비평서. <720쪽 · 1만4천원 · 나남판>

누가 컴퓨터를 두려워하는가

—李光炯(78년 工大卒 · KAIST 교수)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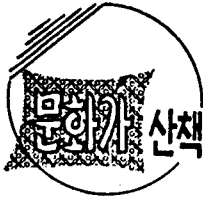
음악중흥인들이 함께 모여 밝고 건장한 음악이 사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스테파노스」 내부

말한다.



동문父子가 만든文化공간

「박은音樂」기념대社會도건강



◇ 父 민건식동문



◇ 子 병진동문

것은 역시 동문이며 바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丙眞동문도 모교 재학시 文理大 학생들로 구성된 「엑스타스」라는 그룹에서 음연을 연주했다. 이 밖에 閔建植동문 季植(65년 工大卒 · 現代중공업부사장)씨도 서울 大人이다.

앞으로 「스테파노스」를 음악인들을 위한 장소로 개방, 연습실 소규모 음악회 간 이리시 이를 주도할 계획이 있는데, 여도 할 계획이 있는데, 순수한 비영리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오는 10월말 이곳에서 열리게 될 제1회 마로니에음악축제준비로 여남이 없는 閔眞동문은 「바쁜일」으로 인해 꿈과 낭만을 잃어버린 요즘을 동송동문리대 마로니에로 연상되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불꽃이 흩날렸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애기하고 노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컴퓨터의 역사, 현황, 이용등에 관해 알기쉽게 풀어쓴책. <295쪽 · 4천5백원 · 동아일보사판>

내가 타고 하루여행

—金錫根(82년 經營大卒 · 정보마켓 차림代表)編著

서울근교 가볼만한곳의 드라이브, 레저가이드 및 별미식당 안내를 상세한 지도와 함께 수록한 정보서. <220쪽 · 4천8백원 · 정보마켓차림판>

니체와 현대철학의 이해

—崔俊成(59년 文理大卒 · 忠南大교수)回甲기념논문집

<575쪽 · 철학과현실사판>

展示

吳炳寅(68년 美大卒 · 安東大교수)

인간의 번뇌를 밤새워 지킨 닭은 새벽을 타고 해를 치며 청아한 肉聲으로 운다. 卑屈도 조고不正도 파해치고 생명도 헌신하여 거칠은 人苦에 퇴화된 날개를 가진 닭은 나를 대신하는 化身이었고, 내 삶의 흔적이었다.

—作家的 말中에서—



보금자리 / 한지에 수묵담채, 66×51cm, 1991

소식

친성하고 있다. 자연대는 직선을 선호하는 교수들이 37%에 이르지만 총장이 지명후 교수회의 인준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서 44%에 이르고, 총장의 일반적 지명도 19%에 달하고 있다. 직급별로 는 조교수급은 62%가 직 선을 선호하는 반면에, 교수급은 39%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중안도 서판인 일정 수준 유지하 되, 전판발판과 체제의 강 화를 원하고 있었다.